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사랑분별 여의면 본래의 지

중생불 ④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아니며. 그러기 때문에 경계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쇠소의 헛바닥이 설법을 하네. 이거 조금 더 여러분 아는 거 한 마디 하겠습니까. 설법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이걸 알죠? 대혜승 보살, 말해 보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은 이걸(몸) 갖다 내라 할 거라 말죠. 이걸 갖다 김백봉이라 할 거라. 내 헛바닥에 성품이 있나요? 설법하게 내 입에 성품이 있나. 설법하게. 아니거든. 솔직한 말로 아니거든. 그럼 우리 이 색신 여기에 백혈구 적혈구, 색신 가족주머니 이거 성품 없는 것이거든. 성품 없는데 어떻게 설법하죠? 보는 것도 못 보고 듣는 것도 못 듣지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말하죠? 생각도 못하고 그거 참 묘하죠? 무형무색인 말이지 우리의 법신 자리, 법신이라 해도 좋고 허공신이라 해도 좋아. 뭐라 해도 좋아. 이 이치를 알면 뭐라 해도 좋아요. 요놈이 생각을 딱 결정해서 이 말 하겠다 저 말 하겠다. 이것을 빌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품이 없는 내 입에 빌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하니 이걸 모르는 생사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죽 말하자 할 때면 우리의 육신이라 하는 것은 아무 성품도 없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갖다 내 몸이라 하고, 경계에 달라져서 일어나는 것을 내 마음이라 해서 뒤바뀐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를 만 년 하기로서니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나 복은 지어, 복은 짓더라도 그건 쉽게 속하거든. 심복에 속하는 거여. 세는 거. 유류복. 이걸 여러분들 아시는 거니까 더 말할 거 없고 안테

그러면 무엇이냐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불법이예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말이지 이 상대성으로 이루어진 좋고 나쁜 걸 무시하는 건 아니라. 그걸 그대로 굴릴 줄 알아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대성으로 모든 걸 갖다가, 몸을 나누어서 즐겁도록 하는 것인데 결국에 말이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 할 때면 네 가지 태관습화 이야기 가 나와서 하

는 말인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것만이 전부다 이런데, 결국은 윗이나.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그러한 복은 저절로 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하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이 비로자나불의 화신이란 것도 알았던 말이지. 중생불, 여러분 중생불이거든. 경에는 이런 말 없어요, 사실로 중생불이 중생불이 아니냐 말이요. 우리가 부처님의 그 씨앗이 없다면 중생불이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씨앗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간직하고 있으니 중생불이지 윗이예요. 그러면 어찌해서 중생불이냐 말이지. 사랑 분별하기 때문에 중생불이란 말이예요. 또 경계에 휘둘러서 거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휘둘러지지 않고, 들어왔지 않고 그

“
육신은 성품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자신의 몸이라 하고,
경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자신의 마음이라 생각하니
근본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

래서 사랑 분별 말씀하게 여될 줄 알아. 말씀하게 여의어 버리면 본래의 지. 저 제비가 집 짓는 것 탄복하지 않았어요? 그것 본래지 지 윗이예요? 지푸라기 갖다가 전등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그거 본래지 지 윗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의 지가 있다는 걸, 본래의 우리의 슬기, 본래지가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 의심 안할 거라 말이지. 이를 잡아도, 이란 놈도, 요즘 이는 없더라. 뽕뽕 뽕뽕 도망가는 거 본래 지거든. 잡하면 큰일나겠다 말이지. 겁이 나서 도망간다는 말이지. 그거 본래의 지지 윗이예요. 누가 니는 잡하면 큰일난다 하고, 어쨌든지 우리가 본래의 지가 있다는 걸 이제 여러분이 의심 안할 거라 말이지. 의심안하고 그거 요새말로 절대성자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절대성자라는 하들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 거라.

그까짓 거 요 절대성자라는 육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뒤죽박죽 되도 이까짓 거 문제제어. 이까짓 거 문제제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은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기 때문에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가 뒤죽박죽 된다할지라도 여러분 쿡구멍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 밖에 안 돼. 그 얼마 안 돼.

왜 그러냐. 실제 여러분의 몸뚱이는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위로 가도 가도 끝이 없고 밑으로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옆으로 가도 가도 끝이 없다 말이지. 육계 색계 무색계는 한정이 있잖아. 그까짓 거 한정.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여기에 한정 있는 걸 대면 그거 윗이예요? 좁쌀만한 것이지 무엇이예요. 육계 색계 무색계가 하나의 좁쌀알에 지나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 보고 하는 말이 그 말이예요. 여러분이 가족주머니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허공 속에 있어. 이것만 내다 하면 내가 허공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들어있지 마라 말이지. 사실로 여러분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공연히 늘 내라고 하면서 공연히 자꾸 들어왔은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족주머니 안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어디인가 찾아내지 못해요. 가족주머니 안에 들어있었으면 어디가 있죠? 여러분 눈에 있는 가 귀에 있는가 허파에 있는가 대장에 있는가 소장엔 있는가 팔이나 다리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말이지. 찾아내 봐요. 못 찾아내. 못 찾아내.

죽도록 해봤든 찾으려든 못 찾는데 어찌 여러분이 가족주머니 속에 들어있어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지 여러분이 여기 들어있지 않았는데 내가 이걸 쓰니 써. 시시로 변하는 이 가족주머니를 쓰니 써. 하지만 여기 들어있은 건 아니거든. 그러나 이것만 딱 여의어 버리면 말이 지 허공이 여러분 속에 있어. 이거 실감이나요? ... 실감나냐? 이걸 여의어버리면, 니 몸뚱이를 여의어버리면 허공이 니 속에 있어. 실감 안 가냐? 여기 들어있어 있으면 내 말이 거짓말이여. 전부 거짓말이여. 어땠노? 실감 안 가더라도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냐? 논리적으로 맞냐? 그러면 됐어. 사실이여. 여기에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중에 이거 내다 하는 생각이 있어 놓으니, 허공이 니 속에 있다 이래 놓으니 당최 이거 실감이 안 가거든.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止’와 ‘觀’의 공상조성은 수행신심 초석

⑩-4보개 회향

다섯째는 지관문(止觀門)이다. 앞에서 지(止)와 관(觀)을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먼저 이 지를 닦아 나가는 방법으로 기시론(起信論) 같은 데서는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고요한 곳에 한가롭게 있어야 된다. 둘째는 지계(持戒)가 청정해야 된다. 셋째는 의식이 구족해야 된다. 입을 것, 먹을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런데 정신을 쓰지 않을 도리가 없어 그칠래야 그쳐지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좋은 스승님, 선지식(善知識)을 얻어야 한다.

다섯째는 모든 속무(俗務)를 쉬어 버려야 된다. 인연 되는 사무, 그러니까 모든 신상 사무를 견어치워야 고요해 질 수가 있다. 일가 · 친척 · 아내 · 부모 · 자식, 이런 것이 번거롭게 따르다 보면 고요하기 다 틀렸다. 그러므로 신상은 아주 단 순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지(止)에서 특히 주의를 환기할 것은 요증선(禪)을 한다. 즉 지문(止門)을 닦는다는 이가 많은데 여기엔 반성할 점이 많다. 인간 생활의 형식을 외면하든가, 일부러 이를 외면하는 것 같은 이즈러진 태도를 보이려고 한다. 그들은 청정을 닦고 출가한 사람으로서 불제자의 수행을 하는 데만 주안을 두었으며 그것도 지에, 선정(禪定)에만 한정해 버렸다. 오로지 선정만을 한다. 고요한 지경만 닦고 있으면 자연히 그 정적(靜寂)한 곳에서 그만 마음이 침잠해져 맥이 풀리고 가라앉는 병이 든다. 명산의 공기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 자지러져 모든 것을 다 망각하고 머리가 텅 비어 버리는데 이것을 벽하병(碧霞病)이라고 한다. 혼자 드높은 유현한 철학이라도 더듬는 양 자처하는 것이지만 실상인즉 망상을 달리거나 부질없는 망상을 일삼는 명정한 부류다. 그밖에도 아주 게을러 빠져서 남이 농사지는 것, 못 해 주는 것, 다 갖다 쓰고 도사리고 앉아서 손끝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을 아껴 일하지 않고, 놀고먹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나, 못 선(善)을 달갑잖게 여긴다. 이것은, 그러니까 예고이즘이다. 입으로만 중생을 뇌까리고, 땀을 워한다 하지만 실천 공행과는 거리가 멀고 보니 이걸 아주 개인주의, 그것도 다분히 이기주의적인 자신에게 꼭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대자

대비와는 멀리 동떨어진 자리에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병통을 부수고 깨트리기 위해 우리는 또 관(觀)을 닦는다.

관, 이를테면 위빠사나를 닦아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세간(世間)의 선이란 것은 제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법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오래가면 폐단을 일으킨다. 법구생애(法久生)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란 순간순간으로 자꾸 변천되어 나간다. 천변만화하는 그 양상을 부단히 깊이 관찰하고 분석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므로서 사물을 심각하게 이해한다. 이 관, 위빠사나를 하는 방법으로써 네 가지가 있다. 법상관(法相觀) · 대비관(大悲觀) · 서원관(誓願觀) · 정진관(精進觀)이 그것이다.

위에서 지(Samasatta)와 관(Bipasana)을 말하였는데 이 두 가지는 한데 합쳐져

“
관을 닦아 선근을 일으켜
악에 애착하는 버릇 버리고
좋은 일하면 힘차게 나가야
이치에 순합하는 지와 관
한 쌍의 수레바퀴 이루어
한가지로 수행해 나가자
”

야한다. 따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순(隨順)이 따라야 되며 그러면 서로 순종하고 떠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지관문(止觀門)이라고 하는 것이며, 행동에서 무무는 데나 몇거나 일어나거나 간에 항결같이 지관(止觀)이 수행하여 움직여져야 된다. 비록 모든 진리라는 것이 그 자체에는 그러한 상(相)이 없으나 치더라도 마음의 생각에 응하여 일어난 인연(因緣)의 집합(集合)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善惡)을 깨치게 되고 선악에 따라 고락(苦樂)도 깨닫게 된다. 고락뿐만 아니라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역시 커다란 즐거움을 향유할 수도 있다. 그런 과보(果報)를 우리는 실지로 받고 있다. 과보라는 것은 그 자체에 그런 상(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구해질 수 없지만 인연을 따라 선악의 업보가 일어나는 것임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

각하게 된다. 선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어디까지가 선이며 어디서부터 악인 것일까? 고리란 또한 어떤 것을 일컬음인지, 그 자체는 도무지 얻어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알게 된다. 세간(世間)에 너무 애착하는 어리석은 범부들로 하여금 지(止)를 다스리기 위해 지의 문을 닫도록 한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이승(二乘)과 소승(小乘)을 위해, 그들이 나하냐면 그만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비겁한 생각을 버리도록 지의 문을 닫게 한다. 그리고 관(觀)을 닦으면 이승들의 대자 대비를 일으킬 줄 모르는 용렬하고 막혀 버린 마음의 과실 · 허물 · 착오를 물리쳐 발심(發心)하게 된다. 또 보통 우리 범부들은 관을 닦아 선근(善根)을 일으켜 좋은 일을 힘차게 해 나가게 되고 악(惡)에 애착하는 나쁜 버릇을 여의게 한다. 그러하여 이를 순리고행(順理苦行)의 지관(止觀)이라고 한다. 이치에 순합하는 지와 관을 한가지로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를 물리치기 위하여 지관을 한가지로 닦는다. 지와 관이 한데 합쳐져 한 쌍의 수레바퀴를 이루어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듯 둘 다 구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리(菩提)의 불토(佛土)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첫째는 이치에 순합하여 편파함이 없이 반드시 이 두개는 다 갖추어져 병행해야 되고 둘째는 이장(二障)의 하나, 반뇌장(顛倒障)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에 이끌려 얽매어서 큰 탈을 내는 것을, 또는 소지장(所知障)이라는 이는 지식의 그릇된 작용을 다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지관을 닦아 이로써 그 폐단을 없애야 된다. 이 둘은 서로 돕고 받들므로서 이루어진다. 즉 공상조성(共相助成)이다. 지와 관은 둘 다 합친 행동이라야 세의 두 날개로 공중을 날고, 수레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 바퀴 하나가 없으면 그 수레에 어떠한 물건도 일을 수 없다. 이렇듯이 수행신심(修行信心)이란 어려운 것이다. 이상으로 회향(廻向)은 대강 다 얘기하였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친구가 내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 하지만 '호새지 않고 말하게 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차분히 물어보았더니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지.

김상현 (초5)

마음꽃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 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라)